

■ 주간 증시 포커스

북한 광 포격 리스크 완화될 듯

IT주 저점 매수구간 활용

화학정유주·은행주에 관심

지난주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에 북한 전략군사령관이 “광 포위사격 검토”라는 폭탄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가 고조되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에만 75.7포인트(-5.44%)하락하며 2319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도 13.2포인트(2.06%) 하락하며 628.3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2012년 5월 셋째주(-7.02%) 이후 주간기준 최대하락폭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1)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 고조, 2) 외국인의 IT섹터 매도 지속, 3) 미국 연준이 보유 자산축소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외국인 변동성 확대(원화 약세)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 광포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제도개혁, 세계개혁 등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러시아 스캔들 확대로 정치적부담이 커진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지지하 하라과 정치적위기를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광포격발언은 과거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일회성 도발이 아닌 미국 영토를 타격하겠다는 본격적인 선전포고 행위로 소위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현실화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파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나 북한의 광포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8월 후반으로 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스피지수조정 직접적인 요인은 지난주 언급했듯이 국내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섹터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IT섹터에서 7월 넷째주 1조 6326억원과 8월 첫째주 7220억원에 이어 지난주에도 1조 136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지난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832억원을 순매도해 IT섹터대비 순매도가 2500억 이상 적다.

또한 지난 3주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2379억원을 순매도했는데 IT섹터에서만 3조 4906억원으로 유가증권 전체 순매도금액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IT섹터의 상승으로 크게 증가한 IT섹터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Sell-IT 라 할 수 있다.

코스피지수의 조정 저점을 예상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주 하락을 심화시킨 지정학적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번 IT섹터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순매도 요인도 여전히 상황으로 외국인의 IT섹터 순매도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난주 언급했듯이 9월 선물옵션등시만기를 겨냥한 외국인의 포지션구축은 이번주에 본격화 될 수 있어 외국인의 선환물 순매도방향과 규모에 따라 코스피지수의 방향과 조정폭 또는 전환 시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하락은 코스피지수의 상승추세이탈 보다는 과도하게 상승한 IT섹터에 대한 비중 조절구간으로 외국인 수급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실적과 성장이 확인되는 IT주 저점 매수구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또한 국제유가 안정으로 화학정유주와 금리인상 수혜주인 은행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추석에는 상큼애 선물해요”



농협전남본부 전남지역 과실 공동 브랜드 본격 마케팅·판로 확보

단감 이어 무화과·사과도 판매 ... 내년엔 복숭아·포도 등으로 확대



지난해 11월 전남과실 공동브랜드 '상큼애' 단감 산지직송 판매대전 진행 모습.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나주지역 특산물인 배를 비롯해 복숭아와 포도 등 전남에서 재배되는 우수한 과일 품목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큼애'로 출하하겠다는 게 전남농협 측의 설명이다.

무화과 취급액 70억원 달성 등 전남에서 생산된 과실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농협계통 마트 외에도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외부 대형유통업체 바이어와의 출하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판로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육성을 위해 전남농협과 전남도는 메뉴얼을 만들고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소비촉진행사를 펼친다. 참어 농가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농가품질 향상교육, 품질조사, 공동브랜드 광고 등 꾸준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지역 과실 공동브랜드 '상큼애'는 각 시·군 브랜드간 과다경쟁을 해소하고, 지역내 과실의 마케팅 창구를 통합해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와 전남농협이 지난해 공동개발한 도 단위 광역브랜드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상큼애를 통해 전남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며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남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진청, 고온다습 날씨 '벼 흰잎마름병' 주의보



잎이 하얗게 말라 죽어 재배농가에 피해를 주는 벼 흰잎마름병(사진)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장마 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벼 병해의 예찰과 방제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유난히 지속된 고온다습한 날씨에 벼 흰잎마름병 발생과 그 밖의 다른 벼 병해의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3일 고온다습한 날씨에 벼 병해가 발생해 확산될 것을 대비해 조기진단과 예방에 힘써 선제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전북 상습 발생지에서 발생이 확인된 벼 흰잎마름병은 잎의 광합성을 방해해 쌀알이 여물지 않아 품질이 떨어지며 발병 시기에 따라 쌀 수량이 20%~50% 감소된다.

벼 흰잎마름병은 바람이나 가뭄피해, 키다리 병 증상과 비슷해 방제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약제를 사용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한 병 진단이 중요하다.

병이 의심되는 경우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1544-8572)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063-238-5343)로 문의하면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벼 흰잎마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습 발생지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이나 직후에 약제를 살포한다. 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즉시스트로빈, 페림존 계통의 적용 약제를 살포한다.

이 밖에도 세균벼잎마름병, 벼 잎집무늬마름병, 벼 잎도열병 발생도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균벼잎마름병은 출수·개화기에 고온다습할 경우 발생이 심하며 적기 방제가 필요하고, 출수가 전후 옥솔린산이나 가스가마이신 계통 등 등록된 전용 약제로 방제한다.

벼 잎집무늬마름병은 병이 진전되면 최대 45%의 수량이 감소하므로 발병한 포기 비율이 20% 정도일 때 발리다마이신에이, 헥사코나졸 계통 등의 적용 약제로 방제하는 게 좋다. 잎도열병은 심해지면 포기 전체가 붉은 빛을 띠며 생장이 멈추므로 카프루피마드, 트리사이클라졸 계통 등 적용 약제를 사용해 예방 유주로 방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박기도 작물기초기반과장은 “벼 병해 예찰로 예방에 힘쓰고, 정확한 진단과 적기 방제로 피해를 줄여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전남지역본부, 진도군연합사업단 '산지유통 현장컨설팅'



지난 11일 진도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산지유통 현장컨설팅' 자리에서 참가자들이 농산물 산지유통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산지유통 역량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지난 11일 진도유스호스텔에서 컨설팅 전문위원, 지역농협 담당자, 공선출하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연합사업단에 대한 '산지유통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산지유통 현장컨설팅은 산지유통의 당면현황과 과제를 정부·학계·농업계 등 8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컨설팅 지원단의 지식과 경험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컨설팅에는 농협경제지주 연합사업팀

나중대 국장의 '진도 농산물 미래를 위한 생산 및 유통 전략'과 전남농협 유통사업단 양상대 단장의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및 산지 대응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진도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 수취가 제고를 위한 연합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

이흥묵 농협전남 본부장은 “2018년까지 관내 16개 연합사업조직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사업조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연합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북구, 삼각동 대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 209, 209-1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대지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 매매 36억
 - 온천지구 내 “직업 테마 파크” 등
 - 600억 투자 예정
 - 상담문의
- H. 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